

주간 증시 포커스

美 FOMC 회의 예정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
코스닥시장 변동성 확대
우량 중소형주 관심 필요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삼성증권 실적소과와 유상증자 예고로 촉발된 조선업종의 급락 이후 중국과의 관계개선 기대감으로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이고 업황 둔화 우려로 하락했던 삼성전자 등 대형 IT주가 강세로 전환되며 주후반 반등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연금 투자확대와 코스닥시장활성화 방안 기대감으로 지난달 급등했던 코스닥지수는 기관매도가 크게 증가해 금요일 744.06포인트로 마감하며 5.5% 급락했다.

최근 코스닥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정책 불확실성'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등을 중심으로 투자확대, 새로운지수 개발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을 성급하게 발표하고 다시 반복하고 연기하는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연말 발표가 거의 확정적으로 거론되었던 코스닥시장활성화 방안은 코스닥시장 상장요건개선 및 세제혜택에 대한 의견조율이 지연되면서 내년초로 연기되었고 연금의 비중확대도 단기간 내에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2주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718억 → -937억, 기관은 -25억 → -3011억으로 외국인과 기관 모두 강한 순매도로 전환되었다.

코스닥시장의 전체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기 때문에 순매수전환이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또 바이오·제약업종은 지난해 연말대비 시가총액이 50%이상 증가한 하며 전체 중소형주 장세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세계개혁안이 통과되면 글로벌 산업경기의 활성화는 중장기 모멘텀이 작동하면서 시장의 성격이 바이오·제약업종은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중목 위주의 슬립화가 진행되고 오랫동안 소외된 산업경기와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주목 받을 가능성이 높아 우량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주 12~13일(미국 현지시간기준)에 미국 12월 FOMC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 금융시장은 이번회의에서 미국기준금리 인상을 100%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12월 국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14일)에 연말 배당투자를 겨냥한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가 진행된다면 연말 배당투자를 향한 수급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 만기일 이후 전통적인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에 대한 접근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귤값 1년새 두배 꺾충... '몸값' 가장 많이 올랐다

이상기후 영향 수확량 줄어 지난해보다 84% 인상
공급량 부족 오징어 51%, AI 사태 달걀 47% 올라

올 한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도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고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 여파로 달걀 역시 가격 인상 폭이 컸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1개월간 귤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4.0%나 올라 조사대상 460개 품목 중 인상 폭이 가장 컸다. 1년 새 두 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 10개 기준 2550원이었던 귤 가격이 올해 2월 3개월 만에 4406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귤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올해 이상기후 영향으로 수확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농업관측본부는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이 44만 7000t으로 지난해보다 약 4%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11월 노지감귤 출하량도 1~2월 가격 상승 기대로 작년보다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표적인 귤 생산지 제주도는 올해 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열매가 열리지 않는 꽃이 많이 피었고 가을에는 잦은 비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큰 귤이 많이 열렸다.

오징어는 올해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이 51.4%나 올라 인상 폭이 꺾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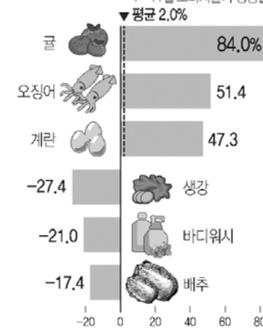
통계청의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오징어 어획량은 약 2만t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만8300t보다 29.3% 감소했다.

어획량 감소로 오징어 가격은 무겁게 상승하면서 장을 보는 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

주요 품목별 가격 증감률

2017년 1~11월까지 11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1~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2.0%



자료/통계청 전체 460개 품목 연합뉴스

내산 생오징어 한마리 평균 소매가격은 4428원을 기록, 2007년 이후 처음으로 4000원을 넘어섰다.

AI 사태와 살충제 파문으로 톨코코스터를 댄 달걀 가격은 지난해보다 47.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큰 인상 폭이다. 달걀은 올해 초 AI가 확산하면서 일부에서는 한판 가격이 1만 원을 넘는 곳이 속출할 정도로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8월 국내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란 한판 가격은 4000원대로 급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올해 1~11월까지 가장 가격이 많이 하락한 품목은 생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4% 떨어졌다. 생강은 시설이 부족해 해마다 가격 등락이 큰 품목 가운데 하나다. 배추(-17.4%) 등도 가격 인하 폭이 큰 품목으로 꼽혔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은 2.0%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축산농협 '2017 축산인 한마음 대회'에서 모범조합원 상을 마치고 안명수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축산농협 제공>

광주축산농협 창립 59주년 '축산인 한마음 대회'

광주축산농협(조합장 안명수)은 지난 8일 광주 시 서구 상무리초컨벤션에서 창립 59주년 '2017 축산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흥복 농협전남지역본부장과 박태선 농협광주지역본부장 등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장을 비롯해 1200여명의 축산인 가족들이

참석했다. 또 광주축협은 조합창립 59주년 기념해 모범조합원을 시상하고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다짐하는 결의문 채택에 이어 축산가족 노래 자랑, 경품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안명수 조합장은 "조합창립 60주년을 바라보는 연륜과 규모를 갖춘 조합으로 이에 따른 의무와 책

임도 뛰마를 수밖에 없다"며 "150만 광주시민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을 갖고 솔선수범하고 앞장서 조합을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주인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축산농협은 올해 학동뉴타운지점 개점, 광주 남구청 로컬푸드입점, 인터넷쇼핑몰 개설 등 사업확장의 성과를 거두면서 이날 현재까지 농협중앙회 종합업적평가 1위와 농협생명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

지능형 스마트 보상 '전자수용재결시스템' 최우수

농어촌공사, 혁신 우수사례 8건 선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는 10일 농어촌 현장 접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다양한 혁신사례를 발굴·공유해 공익과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사로 거듭나기 위한 제철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 우수사례 발굴은 정부 정책에 맞춰 공사 내 101개 지방부서 및 2000여개 사업 현장과 소통체계를 강화해 정책효과와 공공서비스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분야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지진대응 등 국민안전, 복지 농산어촌 건설, 행정서비스 효율성 제고 등이다.

최우수 사례는 지능형 스마트 보상을 위한 '전자수용재결시스템'이 선정됐다. 공공기관 최초로 구축된 이 시스템은 개인 재산의 정당한 보상과 사인간 분쟁해소가 투명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기후변화 관련 우수 사례는 일상화되고 국지적인 불기후에 대비한 '이동용 승수호스 재사용 회수기 제작'과 계절별 강수 편차에 대응한 '사계절 복합영농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시스템' 등 4개가 선정됐으며, 4차 산업혁명 대비 우수 사례는 첨단 ICT기술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미래 농업서비스

개선' 등이 선정됐다. 공사는 선정된 우수사례 총 8건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추가적인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농어촌 현장에 적극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승 사장은 "현장 접점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이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정책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건설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52㎡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십만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망)

공·경매 교육안내

저희 공·경매전문기관인 지오옥션부동산중개법인(주)에서는 그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공·경매 실전교육을 하고자 하오니 관심이 계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11월 중순부터 매주 1회 저녁반
2. 장소 : 본 중개법인 강의실
3. 교육내용 : 이론과 실무를 겸한 실전공·경매 과정
4. 대상 : 1) 공인중개사 2) 공·경매에 관심이 있는 자 등
5. 수강료 및 교재대는 실비로 함
6. 강사

- 1) 본 법인 이사
- 2) 전,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공·경매과정 겸임교수
-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매수신청교육 교수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